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하는 책 읽고 건너가기’ - 9월의 책 알베르 카뮈 ‘페스트’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9월호

#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지독한 어떤 것과 싸우는 중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1913-1960)의 소설 ‘페스트’는 1940년대 가장 도시에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문학작품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독자들에게 그 무게감을 전하지만, 그 작품이 어떤 시대적 상황과 맞닥드릴 경우엔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시대를 거쳐 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빠트린 ‘코로나 19’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페스트’는 단순한 소설 속 이야기로 읽히지 않는다. 책 속 봉쇄도시 오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나 등장인물들의 삶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하는 책 읽고 건너가기’ 광주일보와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9월의 책으로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가 선정됐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지독한 어떤 것과 싸우는 중이다. COVID-19다. 오래 전 유럽에는 페스트가 들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페스트와 싸웠던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다. 카뮈의 말을 직접 듣는다. ‘나는 페스트를 통해 우리 모두가 고통스럽게 겪은 그 숨막힐 듯한 상황과 우리가 살아낸 위협받고

유배당하던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한다. 동시에 나는 이 해석을 존재 전반에 대한 개념으로까지 확장하고자 한다.” 거의 누구도 감염시키지 않을 선택한 사람이란 방심을 안 하는 사람이다. 방심하지 않으려면 의지가 있어야 하고, 긴장해야 한다. 잘 존재하려면 긴장할 필요가 있다.”

최 교수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다.

카뮈가 1947년 발표한 ‘페스트’는 전염병이 창궐한 고립된 도시에서 극한의 절망과 마주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책이다. 출간 즉시 한 달 만에 초판 2만부가 매진되는 기록을 세운 ‘페스트’는 그해의 ‘비평가상’을 수상하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의 걸작’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인구 20만의 해안 도시 오랑에서는 죽어가는 쥐떼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정부는 페스트를 선포, 도시를 봉쇄한다. 외부와 차단된 도시에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고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려 애쓰는 리유, 부당한 죽음을 거부하는 타루, 오랑에 체류중이던 신분기자 랑베르, 신의 뜻을 따르자고 설교하는 파블루 신부 등 다양한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하지만 사태는 점점 악화해간다.

책에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저마다 자신 속에 페스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페스트 앞에서 무사하지 않으니깐요” 등의 인상적인 대목이 많다.

알제리에서 태어난 카뮈는 소설가이자 철학자다. 젊은 시절 장 그르니에를 만나 사상적 스승으로 삼은 그는 1942년 ‘이방인’을 발표하며 이름을 알렸고 에세이 ‘시지프 신화’, 희곡 ‘칼리굴라’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페스트’ 출간 후 마흔 세살의 젊은 나이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그는 1960년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는 그의 60주忌다.

‘페스트’는 민음사 등 국내 대표 출판사들이 펴내고 있는 세계문학시리즈에 모두 수록돼 있다. 몽크의 작품 ‘죽음의 침대’가 표지로 쓰인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시리즈의 ‘페스트’는 2011년 카뮈에 정통한 불문학자 김화영 고려대 명예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프랑스 엑상프로방스 대학에서 카뮈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20권에 달하는 ‘알베르 카뮈 전집’을 번역,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카뮈 전문가로 불린다.

문학동네는 2015년 서울대 불문과 유호식 교수의 번역으로 ‘페스트’를 출간했으며 열린책들은 지난 2014년 최윤주가 번역한 ‘열린책들 세계문학’ 229번째 시리즈를 내놓았다. 또 출판사 ‘더 스토리’는 1947년 프랑스 초판본 표지를 활용한 ‘페스트’를 번

## 키낭

‘레트로 감성’ 열풍 ‘가을, 뉴트로 하실래요’ ‘화가가 사랑한 정원, 모두의 명소가 되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키낭’ 9월호가 나왔다. 이번호는 특집 ‘가을에 뉴트로 하실래요’를 통해 지난해부터 불고 있는 ‘뉴트로’ 열풍을 들여다본다.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인 뉴트로로는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레트로를 넘어 복고를 새롭게 해석해서 즐기는 경향을 의미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뉴트로 콘텐트가 심리적 위안과 즐거움을 주는데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재석, 이효리, 비(정지훈)가 결성한 그룹 ‘싸크리’가 90년대 감수성을 재해석한 노래 ‘다시 여기 바닷가’ 등으로 가요계를 평정하는가 하면 유통업체나 식음료, 가전업체 등 기업들도 뉴트로 마케팅에 동참했다. 동명동 한옥카페 거리와 앙림골목, 순천 드라마촬영장 등 광주·전남 곳곳에 복고 감성을 접할 수 있는 공간들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올 가을을 물들일 ‘레트로 감성’으로 들어가본다.

‘예향 초대석’에서 만나볼 주인공은 한복 외길을 걸은 김혜순 한복 디자이너다. 올해로 39년째 우리 전통의상에 ‘혼(魂)’을 불어넣고 있는 김 디자이너는 왕의 복식과 저고리 600년 변천상을 학문적으로 연구·재현하며 한복의 고운 멋과 단아한 멋스러움을 널리 알려 왔다. 김혜순 한복 디자이너-전통복식연구가의 외길 인생과 예술세계에 대해 들었다.

기획 ‘화가가 사랑한 정원, 모두의 명소가 되다’에서는 외지인들에게 공개되며 명소가 떠오른 국내의 화가들의 정원을 살펴본다.

최근 전남도가 주최한 ‘제1회 전남도 예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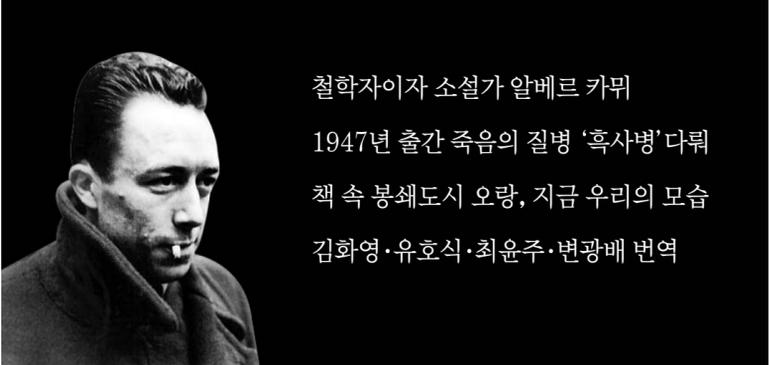
원 콘테스트’ 공모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은 순천시 별량면 장막마을 ‘화가의 정원 산책’은 민명화씨가 25년 전부터 꾸며온 공간이다. 탁트인 잔디밭을 중심으로, 큰 나무를 바깥으로 배치한 정원은 마치 숲 속 숨겨진 ‘비밀의 화원’ 같은 느낌을 준다.

한국의 ‘100대 정원’에 뽑힌 충북 청주의 ‘운보의 집’, 나주 금천면에 자리한 한국화가 박태후 화백의 ‘죽실한’, 프랑스 지베르니의 ‘모네의 정원’도 들여다본다.

‘싸목싸목 남도 한 바퀴’는 ‘자연속 가족마을’로 꼽히는 곡성으로 떠난다. 곡성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고장이다. 섬진강과 보성강(대항강)은 자연습지를 형성했고, 전라선 폐선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했다. ‘암록 상사수’와 아트빌리지 ‘시그니카’ 등 새로운 공간도 준비중이다. 지역 특산물 토란과 멜론, 참깨까지 먹거리도 단연 최고로 꼽힌다.

‘클릭, 문화현장’이 찾아간 곳은 광주의 핫플레이스 앙림동 펜킨마을에 새롭게 탄생한 공예 특화거리다. 광주시와 남구가 전통가옥 20여채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공예특화거리에는 현재 목공예, 도자기, 그림, 디자인아트, 주얼리 등 12개 공방이 입주해 있다. 기존 펜킨마을 정크아트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외에 ‘문화를 품은 건축물’은 화이트트관외관의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신인 압해읍중합복지회관, ‘우리 땅 우리 문화’는 나귀가 살고 온 불법이 머문 천년 고찰 속리산 법주사, ‘예향이 만난 이 사람’은 KIA타이거즈 마운드에 새로운 별이 된 고졸 루키 정해영과의 만남도 이어진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철학자이자 소설가 알베르 카뮈  
1947년 출간 죽음의 질병 ‘흑사병’ 다뤘  
책 속 봉쇄도시 오랑, 지금 우리의 모습  
김화영·유호식·최윤주·변광배 번역

번역으로 출간했다.

9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책 읽는 개그맨’ 고명환씨와 ‘페스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가 열린다. 토크 내용은 광주일보와 새말새품집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또 10월 첫주에는 최교수가 읽은 ‘페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 작가 그림과 함께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연간집 ‘사랑섬 학교’ 발간

동시·동화·평론 등 작품 수록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회장 김복) 연간집 ‘사랑섬 학교’ (제31호)가 발간됐다.

이번 연간집에는 동시와 동화, 평론 등 아동문학 관련 다양한 작품들이 수록됐다.

동시에는 이성자·전원범·정혜진·조오복·조영일·조화련·최정웅 시인의 작품이, 동화에는 배다인·양인숙·양정숙·염연화·윤산현·정소영 작가의 작품이 실렸다.

평론에는 노창수 시인의 ‘따스함의 시와 꾸준함의 시-서오근 동시론’과 김관식 시인의 ‘동시 습작 방법의 탐색과 반성’이 실렸다.

연간집에서는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연수회, 장

흥문학기행 및 한국문학 포럼 참석 관련 사진 등 다양한 활동 사진을 만날 수 있다.

한편 김복 회장은 ‘문학과 인간’이라는 발간사에서 “아동문학은 인간만이 갖는 인정과 원초적 심정을 작품으로 추구한다. 따라서 아동문학인은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인간애가 풍부했으면 한다”며 “연간집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자 한해의 결실이며 반성의 자료이고 발전의 디딤돌”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여성가족재단, 아이친구 이벤트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이 운영하는 광주시 통합돌봄정보플랫폼 아이친구(1279)센터에서 상담계시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 시민들과 함께 돌봄에 대한 고충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3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응모방법은 상담계시판을 이용 후 필수해시태그(#광주시통합돌봄정보플랫폼, #아이친구센터, #인심출산돌봄정보, #광주여성가족재단)와 함께 인증샷을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된다. 이벤트 참가자 중 선착순 100명에게 음료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오는 4일 아이친구센터 SNS를 통해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친구센터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

## 광주전남작가회의 ‘작가’ 21호 ‘오월문학의 진로와 가치로서의 답론’ 수록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김안)가 발행하는 기관지 ‘작가’ 21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집은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을 맞아 ‘오월문학의 진로와 가치로서의 답론’을 주제로 한 오월문학계 심포지엄 발제 자료를 수록했다.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의 ‘증언의 문학에서 평화의 역사로’, 윤대서 서울대 기록관장의 ‘80년대 대학생의 5·18 광주 기억하기-서울대 기록관 소장 학생 운동 자료를 중심으로’, 홍기돈 문학평론가의 ‘과학으로서의 증언과 내면으로서의 환각-1980년대 발표된 5월 광주 소재의 작품들에 대하여’가 실렸다.

다른 특집으로는 전국 작가들이 생각하는 광주와 오월을 다룬 ‘작가들의 광주와 오월’을 수록했다.

김상천 시인의 ‘나의 광주와 김남주와 서사와’, 김석영 수필가의 ‘광주, 40년, 인연’, 김채서 수필가의 ‘나의 오월은?’, 김수 시인의 ‘그날이 오면’, 박관서 시인의 ‘삶의 숨결과 같은 5·18 그리고 시’, 전점석 작가의 ‘1980년대 광주 상무대와 대구 50사단 헌병대’, 정규철 학예을 인문학 연구소 대표의 ‘서석에 기대어’, 주종섭 르포작

가의 ‘1980년 5·18 광주항쟁과 여수에서의 저항’, 피재현 시인의 ‘나의 광주행’은 광주를 바라보는 전국 문인들의 사유와 관심이 담겨 있다.

이밖에 회원작품으로 강대선·강희진·석연경·신남영·염장관·이승철·주영국 시인의 시와 김지현·송은우·임미나 소설가의 소설, 김미승·최현주·한완식 동화 작가의 동화가 실렸으며 김안·이화경·김황흠·김령·한경숙 작가의 서평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조맹’란에서는 등단 50주년을 맞은 해남 출신 김준태 시인의 작품세계와 삶을 정리했다. 자선 대표시 ‘코로나시’, 고선주 광남일보 기자의 인터뷰 ‘생명존중과 평화, 하나됨(不二)의 세계 추구-5·18정신’ ‘도그마, 속에 넣지 않고 날개 달아주어야’, 정민구 전남대 강의교수의 ‘불이(不二)의 시학-김준태론’과 시인의 연보 등이 수록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